

I. 교환 프로그램 참가 동기

미국에서의 생활에는 어떤 좋은 점과 힘든 점이 있는지, 제 성향과는 맞는지 몸소 체험해보기 위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또, 미국 대학의 교육과정과 교수법은 한국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II. 파견대학 및 지역 소개

UC(University of California) 소속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UCEAP 프로그램에 지원한 후 1지망부터 3지망까지 파견 대학 선호 순위를 제출해야 합니다. UCEAP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 가능한 대표적인 학교로는 UC Berkeley, UCLA, UC Davis, UC Irvine, UC San Diego가 있습니다. 모두 미국 공립학교 중 높은 입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1지망 대학으로 배정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배정 기준을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실제로 생활하면서 느낀 캘리포니아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화한 기후: 캘리포니아의 가장 큰 장점은 좋은 날씨입니다. 겨울(가을학기 말~봄학기 초)에도 춥지 않고 다습하며 여름(봄학기 말~가을학기 초)에는 습하지 않고 째깍한 날씨입니다. 이 점은 동부보다 훨씬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여행: 캘리포니아에 거점을 두고 서부 여행을 다니기 좋습니다. 도심지를 여행하고 싶다면 샌프란시스코, LA, 샌디에이고, 라스베이거스, 시애틀, 벤쿠버에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자연 경관을 원한다면 그랜드 캐년, 요세미티 국립공원, 타호 호수, 빅 서(Big Sur),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동부에 비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행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5절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단점도 있습니다.

- 높은 물가: 거주민들의 높은 소득수준과 높은 세율로 인해 살인적인 물가를 견뎌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파견되었던 버클리는 캘리포니아에서도 물가가 아주 높은 편에 속합니다. 최근 교환율 악재와 겹쳐 물가가 한국의 2~3배 정도입니다.
- 대마초 노출: 캘리포니아는 대마초 흡연이 합법인 주로, 길거리나 실내에서 대마초 냄새를 심심치 않게 맡게 됩니다.

(UC 버클리) 같은 UC 대학이라도 지도에서 살펴보면 위치가 천차만별입니다. 크게 나누자면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실리콘밸리가 있는)가 있는 북쪽의 Bay Area와 남쪽의 LA와 샌디에이고로 나뉘볼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LA까지는 편도로 비행기가 한 시간 반 정도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UC 버클리는 Bay Area를 가로지르는 지하철 BART가 지나며 샌프란시스코까지 지하철로 30분이라는 뛰어난 접근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행을 염두에 둔다면 요세미티, 타호 호수, 빅 서까지 자동차로 편도 3~4시간만에 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UC 버클리는 UC 대학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미국 공립 대학 중 최상위의 성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제학, 생물학, 컴퓨터과학, 심리학 등에서 특히 두각을 드러내는 학교입니다. 캠퍼스를 걷다 보면 노벨상 수상자를 위한 지정주차석을 심심찮게 마주치게 됩니다.

다만 오래된 학교이다 보니 UCLA나 UC 샌디에이고 캠퍼스에 비해서는 시설의 규모가 작고 오래된 인상이 있습니다. 특히 UCLA 캠퍼스를 방문했을 때 건물의 크기나 다양한 내부 시설을 보고 감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남쪽의 LA나 샌디에이고에 비해서는 구름이 많고 비가 많이 오는 편이므로 봄학기 중반까지는 기대한 서부 날씨가 아닐 수 있습니다.

III. 출국 전 준비 사항

출국 전 준비의 핵심은 대책없이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준비 기간 동안 기말고사와 각종 과제가 겹쳐서 안내 메일이나 중요한 기한을 놓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불필요한 지출이 생길 수도 있고 원했던 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학교 메일을 자주 확인하고 중요한 기한은 꼭 일정으로 저장하는 게 좋습니다!

(이해를 위해 각 항목별로 제가 완료한 일자를 적어두었습니다.)

1. 비자 신청

UCEAP 프로그램 참여자는 대부분 J1 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 UCEAP application 작성: OIA 담당자님의 안내에 따라 UCEAP 웹페이지에서 application을 작성합니다. 이때 파견학교 선호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UCEAP 웹페이지에서 각 학교별로 전공별 제한사항과 선이수조건을 확인할 수 있으니 이에 주의하여 선호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8.6.)
- UC 버클리로부터 admission 메일 수신: 한참 후에 버클리로부터 학교 메일로 안내 메일을 받았습니다. 안내에 따라 서울대의 MySNU와 같은 CalCentral 계정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제 CalCentral의 Task Manager를 통해 출국 전 준비 사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3.)
- NIF 작성: NIF(Non-Immigrant Information Form)은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버클리 측에서 작성해주어야 하는 DS-2019라는 문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정보를 담는 문서입니다. 이 NIF를 신속하게 작성해주어야 버클리 측에서 각종 행정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중간고사 핑계로 작성을 차일피일 미뤘는데, NIF를 최종 제출하고 DS-2019가 오기까지 거의 한 달이 걸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10.31.)
- DS-2019 수령 및 제반서류 준비: 버클리에서 DS-2019를 수령하면 이를 기반으로 비자 인터뷰를 위한 각종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비자 신청인의 각종 신상정보를 기입하는 DS-160을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신청비를 지불합니다. (작성에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또한, 별도의 SEVIS fee를 지불하고 확인서를 받습니다. (모두 11.22.)
- 비자 인터뷰 예약 및 인터뷰: 이제 비자 승인을 위해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를 잡기 위해서 대략 한 달을 기다려야 하므로 예약은 미리미리 해야 합니다. J1 비자 인터뷰는 준비물만 잘 챙겨간다면 별 문제 없이 부드러운 분위기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비자가 부착된 여권을 택배로 수령하고 나면 출국할 수 있게 됩니다. (예약 11.22. / 인터뷰 12.18. / 수령 1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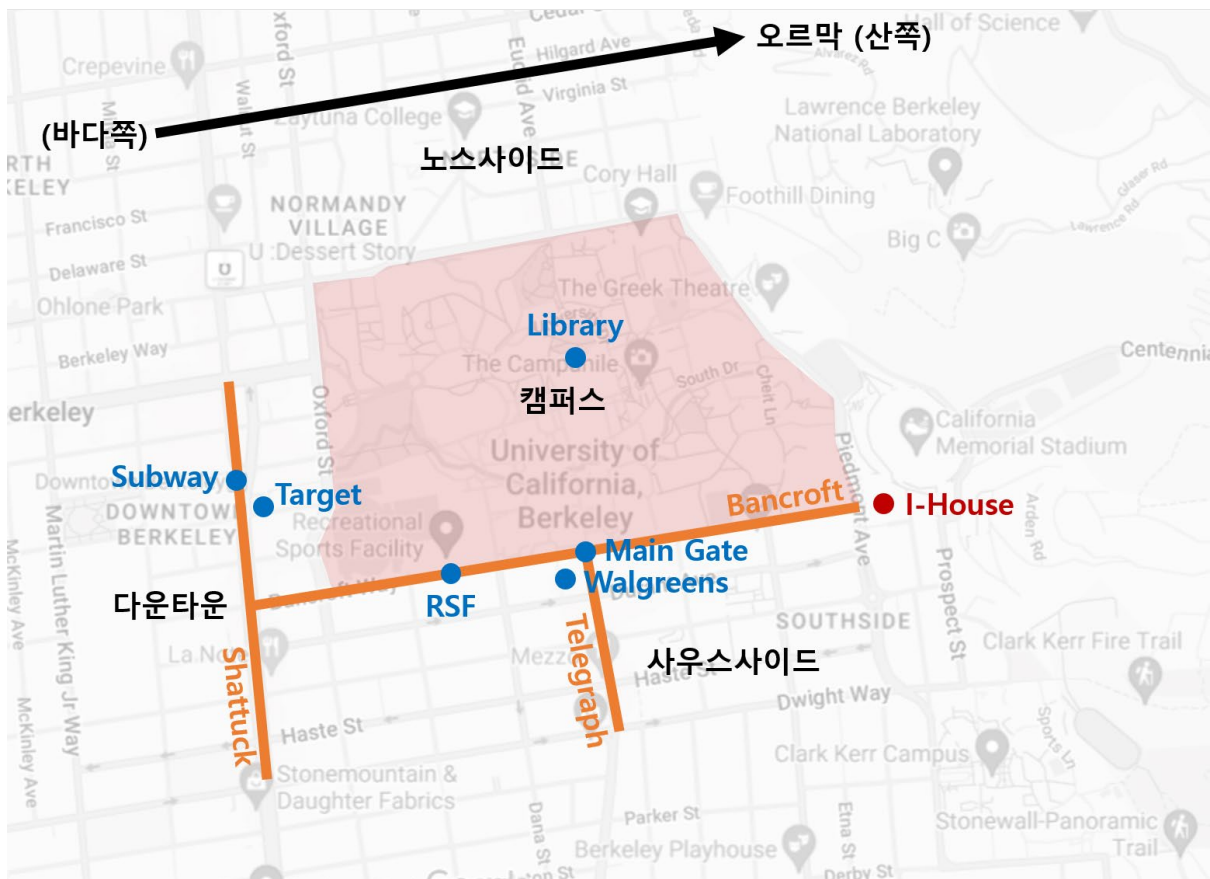
2. 숙소 지원

대표적인 선택지로는 I-House, 코오프(Co-op), 기숙사(residence halls + apartments)가 있습니다. 저는 I-House에서 한 학기를 보냈습니다. 제 경우에는 이미 기숙사 신청은 1차 마감되어 지원만 하고 거의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지원일 10.15.) 실제로 약 한 달 후에야 지원 결과가 나왔는데 지망과 관계없이 방 4개에 5명이 함께 사는 아파트의 더블 룸으로 배정됐습니다. (결과 수신 11.10.) 관심이 있으시다면 Berkeley Housing 웹페이지에서 모든 교내외 기숙사의 위치, 비용, 구조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I-House는 유구한 역사의 사설 기숙사로, 교환학생, 타국 출신 대학원생과 3학년 이상의 본교 학생이 함께 생활하는 기숙사입니다. 출신 국가의 문화를 소개하는 DiversiTEA, 뷔페를 즐기면서 다른 학생들의 공연을 볼 수 있는 Sunday Supper, 음악적 재능을 뽐낼 수 있는 Open Mic, 저렴한 비용의 크루즈 파티, 프랫 파티, 단체 샌프란시스코/산타크루즈 관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교환학생 비중이 많아 다양한 배경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한국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적응이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뷔페 형식의 식사가 제공되며 과일이나 채소도 부족하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이 높으며 학부생의 경우 대부분 2층 침대가 하나와 책상 2개가 겨우 들어가는 좁은 2인실에 배정되기 때문에 단위면적 당 비용을 생각하면 손해인 측면이 있습니다. (신청 10.3. / 배정 10.17)

코옵은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주거지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낮은 비용입니다. 또한 교환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본교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기 때문에 잘 적응한다면 미국에서의 대학 생활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청소, 요리 등의 가사를 직접 부담하게 되며 학생들이 직접 관리하다 보니 시설이 자주 망가지거나 비위생적일 수 있습니다. 코옵 또한 종류가 매우 많고 성격이 천차만별이므로 bsc.coop 웹사이트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거주하기 전까지는 캠퍼스 주변 지리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데, 캠퍼스를 기준으로 노스사이드와 사우스사이드로 크게 나누어서 보시면 됩니다. 지도에서 축척은 Bancroft를 약 1.5km (걸어서 20분, 대략 서울대 정문에서 아랫공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캠퍼스 북쪽의 노스사이드는 비교적 한적한 주택가입니다. 이에 반해 남쪽의 사우스사이드는 Telegraph가라는 번화가(식당, 바, 클럽 등)를 중심으로 한 상점가와 아파트 형태의 건물들이 더 많습니다. 캠퍼스와 사우스사이드를 구분 짓는 Bancroft가에는 식료품점인 Walgreens, 수영장과 운동시설을 갖춘 RSF가 있습니다. 사우스사이드는 이러한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더 좋습니다. 버클리 와 bay area를 잇는 지하철역은 서쪽의 다운타운에 있으며, 다운타운의 중심가인 Shattuck가에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식당가와 슈퍼마켓 Target이 있습니다. 다운타운은 타 지역에 비해 치안이 안 좋은 편이기 때문에 항상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3. 기타 준비사항

비자, 주거, 수강신청(3절에서 설명)이 해결되면 큰 산을 넘은 것이지만, 그 외에도 자잘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 예방접종 및 결핵 검사: UC 대학들이 요구하는 예방접종 목록 중 아직 접종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보충해주어야 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은 권장사항입니다.) 결핵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ETang이라는 사이트에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므로 그에 맞추어 준비하면 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 준비: 면허증이 있다면 영문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미리 준비하면 좋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대부분 외국의 영문운전면허증도 사진과 생년월일만 있으면 신분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여권 대신 간편하게 소지하기 좋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렌터카를 활용할 때 필요합니다. (※ 렌터카 업체에서는 국제운전면허 소지자에게 차량을 대여해주지만, 단기 교환학생이 캘리포니아에서 캘리포니아 면허를 따지 않고 운전할 수 있는지는 법적으로 모호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자문을 미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의료보험 검토: UC 학생들은 자동으로 SHIP이라는 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SHIP은 한 학기당 200만원 상당으로 상당히 고가입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학교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대체 보험에 가입 후 SHIP 면제(waiver)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ISO(International Student Insurance)에서 판매하는 Berkeley 학생 전용 대체 보험에 가입하고 면제 신청을 했습니다. 다만, SHIP에 비해 보장 범위가 좁으므로 (특히 치과/안과 미보장) 본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잘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insurance card를 지갑 등에 넣어 항상 소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waiver 신청 12.22.)
- 학부생연구프로그램(UROP) 신청: 학부생 신분으로 다양한 분야의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와 AI 분야는 Data Discovery Program Program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보통 지원서와 면접을 요구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Berkeley UROP 웹페이지를 방문해보세요.

IV. 학업

1. 수강신청 (11.7)

단과대별 최저학점 조건(보통 12~13학점)을 지켜 수강계획을 짜면 됩니다. 보통 3~4개의 4학점 수

업에 1~2학점짜리 수업(DeCal, 뒤에서 설명)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울대와는 다르게 각 학과별로 교양과 전공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야의 학과라면 들어가서 개설된 강의 목록을 훑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0번대 수업은 저학년 전공 또는 교양 수준, 100번대 수업은 고학년 전공, 200번대 이상은 대학원생 수준입니다. 강의 계획서를 미리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Reddit이나 RateMyProfesso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브리타임이나 스누라이프와 같이 강의별 후기를 모아둔 사이트가 없습니다.) 또한 버클리의 모든 수업은 예정된 시간보다 10분 늦게 시작("Berkeley Time")함을 참고하세요.

대형 강의의 경우 discussion 시간을 다양한 선택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CalCentral에서 제공되는 Schedule Planner를 사용하면 주어진 강의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시간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러 대안 중 가장 맘에 드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금요일이나 월요일을 공강으로 만들면 학기 중 여행을 다니기 편리합니다.ㄴ

Open은 공석이 있는 수업, Waitlist는 대기열이 있는 수업입니다. 개강 첫 주에 학생들이 수강계획을 많이 변경하는 편이라 일반적으로 waitlist에 있는 인원 중 정원의 10% 정도에게는 기회가 돌아온다고 합니다. Waitlist 수업을 너무 많이 신청하면 최저학점 조건의 충족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비자 상태에 해를 끼칠 수 있으니 적절히 판단해야 합니다. (경제학부의 경우 학점인정이 되지 않는 전필 + 5대 전선을 제외하면 수강신청에 무리는 없었습니다.)

DeCal 수업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수업으로, 보통 1~2학점을 부여하며 저녁 시간 이후에 진행됩니다. 학점인정은 어렵겠지만 흥미롭고 기상천외한 주제의 수업이 많으니 꼭 DeCal 웹페이지에서 목록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보통 DeCal 모집은 학기 시작 후 이루어지므로 버클리에 도착해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2. 수강과목 설명 및 추천 강의

- ECON 133 (Global Inequality and Growth): 국가간, 국가별, 인종간, 성별간 소득/재산 불평등의 측정법, 역사적 추이, 발생 원인, 해결 방법을 다루는 수업입니다. (이번 학기부터는 아니었지만 클라크 메달 수상자인 에마뉘엘 사에즈 교수가 담당하는 강의였습니다.) 불평등에 관한 영향력 있는 경제학 논문을 읽는 과제가 있으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최근 경제학계가 부의 양극화 현상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서울대 학부 강의에서 쉽게 접하지 못하는 주제인 만큼 추천합니다. Discussion에서는 주어진 기사를 미리 읽고 수업 내용과 연관 지어 직접 발제하고 토의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좋은 경험이 됐습니다.

- ECON 144 (Empirical Asset Pricing): 계량경제학(시계열 포함)과 통계학을 간단히 리뷰하고 효율적 시장 가설, CAPM, APT 등 재무관리나 금융에서 다루는 기초개념을 통계적으로 검정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실제 업계에서 사용되는 테크닉보다는 재무관리에서 배운 개념을 계량적 기법을 통해 직접 검증해보는 쪽에 가까운 수업이었습니다. OLS, Regression Discontinuity, 시계열분석(ARMA 등) 등을 직접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 수행하는 과제가 나오는데, 졸업논문을 쓸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

다.

- 그 외에도 직접 수강하신 않았지만 관심있는 연구 주제가 있고 직접 논문을 써보고 싶으신 분들께는 ECON 191(Topic in Economic Research)를 추천드립니다.

- MUSIC 27 (Introduction to Western Music): 서양 음악(클래식 위주)을 다양한 관점에서 감상하는 방법을 배우는 수업입니다. 음악사나 음악 이론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 대신, 한 주마다 '음악과 기관', '음악과 의식', '음악과 즉흥성', '음악과 언어' 등의 주제를 하나씩 다루는 형식입니다. 매주 정해진 곡을 감상하고 수업 내용과 연결 지어 감상문을 작성합니다. 교수님께서 직접 피아노를 연주하시면서 설명해주시기 때문에 클래식을 좋아하시면 강추드립니다.

- Introduction to Full Stack Development: HTML+CSS+JS과 MERN 스택을 아주 빠르게 걸맞기 식으로 배우고 간단한 웹페이지를 구현하는 Decal입니다. Final Project로 팀별 웹개발을 해야 하므로 로드가 많은 편이지만 웹개발을 간단히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V. 생활

1. 현지 물가 수준

비쌌습니다. 메뉴판에 적힌 가격이 전부가 아니고, 팁과 세금까지 붙이기 때문에 1.2~1.3배를 지불할 생각으로 주문을 해야 합니다. 지출 내역을 잘 정리해서 모아두지 않으면 소비가 예산을 훌쩍 초과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학생 대상으로 Amazon Prime Student 무료 체험 6개월 혜택이 제공됩니다. 주변에 코스트코 회원권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 명이 대량 구매를 해 생활비를 아끼는 방법도 있습니다.

2. 식사 및 편의시설

미국에 도착하시면 우선 통신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주변에서 가장 많이 쓰는 통신사는 저렴한 Mint인 것 같습니다. 학기를 마치고 미국을 오래 여행할 계획이 있다면 그 기간까지 고려해서 적절한 플랜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메신저는 보통 Whatsapp을 사용합니다.

또 은행계좌를 설립하셔야 합니다. 보통 Chase나 Bank of America를 많이 사용합니다. 저는 Chase에서 계좌를 개설했는데, 캠퍼스 정문에서 가까운 곳에 지점이 있어서 추천합니다. 도착하시면 웹사이트를 통해 대면 계좌개설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한 1주일 이내에 예치할 현금과 함께 직접 은행에 가서 계좌를 개설하시면 곧 우편으로 카드를 수령하게 됩니다. 간편송금(우리나라의 카카오페이)은 보통 Zelle과 Venmo를 많이 사용하는데, Chase에서 계좌를 개설하시면 Zelle은 자동으로 연동이 됩니다. Zelle을 이용하시면 정산할 때 아주 편리합니다.

대중교통은 버스와 지하철(BART)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오리엔테이션 주간에는 Clipper Card라고 불

리는 교통카드를 배부해줍니다. 이 카드를 활용하면 캠퍼스 근처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택시는 Uber나 Lyft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대중교통 요금이 비싼 편이기 때문에 4명이 함께 움직인다면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별다른 비용의 차이 없이 훨씬 편할 수 있습니다. 직접 단거리 운전을 하실 일이 있다면 Zipcar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행 목적으로 장거리 운전을 하실 계획이라면 Zipcar보다는 Hertz나 Enterprise와 같은 렌터카 업체를 추천드립니다. 미국에서는 정지 규칙, 센터 터닝 레인, 비보호 좌회전, 카풀 레인 등 한국에서는 생소하게 느껴지는 개념들이 있으므로 미리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 여행

학교에서 내리막길을 따라 버클리 marina 바닷가까지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 본 일몰이 참 멋있었습니다. Lyft에서는 자전거 대여도 가능하므로 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산 쪽으로 올라가면 file trail이라는 하이킹 코스와 Big C라는 뷰포인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문교 뒤로 해가 넘어가는 모습이 참 멋지니 가보시기 바랍니다. 버클리 근처에는 영화관과 상점가가 있는 에머리빌 (Emeryville)도 있으니 새로 만난 친구들과 함께 가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학교 생활에 적응이 되고 나면 버클리 주변을 벗어나 여행을 해보시기를 꼭 추천합니다. 학교 주변 대학생 위주 커뮤니티에서 느끼는 미국이 미국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로 가야 하는 곳은 미리 티켓을 구매하지 않으면 비싸지기 때문에 미리 계획하셔야 합니다. 특히, (봄학기 기준으로) 학기 중반에 있는 일주일의 Spring Break와 종강 후 J1 비자가 부여하는 한 달의 Grace Period는 같이 여행을 갈 친구들이 정해지면 미리미리 계획을 짜 두시기 바랍니다.

운전으로 갈 수 있는 대표적인 여행지는 험준한 지형과 시원한 폭포가 인상깊은 요세미티 국립공원, 스키와 맑은 호수가 유명한 타호, 서해안 절벽을 따라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는 빅 서(Big Sur), 와인이 유명한 나파 벨리, 스탠포드 대학과 실리콘 벨리가 있는 산호세 등이 있습니다. 요세미티나 빅서는 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운전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성수기 인원 통제를 위해 예약을 받으므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행기를 타고는 LA, 샌디에고, 라스베가스 등 주변 대도시까지 1~2시간 이내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라스베가스는 보통 동쪽으로 5시간 정도 운전해서 갈 수 있는 캐년(그랜드/브라이스/자이언/앤탈로프 캐년)과 묶어서 여행을 합니다.

Spring break와 같은 긴 기간의 여행 때는 캘리포니아를 벗어나 여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디즈니월드 여행, 콜로라도주 스키 여행, 멕시코 칸쿤 수영 여행, 시애틀까지 기차 여행 등 각자 취향에 맞춰 정말 다양한 테마의 여행을 하는 모습이 재미있었습니다.

VI.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막상 교환 프로그램이 확정되고 준비를 하면서 과연 교환 생활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괜히 타지에서 시간과 돈만 소비하며 헛되이 보내게 되지는 않을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교환 프로그램을 마치며 정말 괜한 걱정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타지에서의 생활이라는 도전을 해내는 것 자체가 자기 안에서 글로벌 인재로서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낯선 환경에서 맞닥뜨

리는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는 어른스러움을 기르는 계기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저와 같이 외국 생활 경험이 없고 외국 생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경외감을 가진 분이라면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앞으로의 삶에서 자신을 이끌어 줄 자신감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